

〈국립박물관〉

천년 묵은 옛터에 풀은 여전히 새롭네

기간 2021.6.30.~2021.10.3.

장소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실

사진으로 신라 불교 미술에 대해 보다 쉽게 소개하는 전시이다. 문화재 사진으로 유명한 한석홍, 안장현, 오세운 작가가 수십 년에 걸쳐 찍은 사진들 가운데 경주 지역 불교 유적을 담은 57점을 골라 선보인다.

안녕, 모란

기간 2021.7.7.~2021.10.31.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2층)

조선왕실 문화를 수놓은 꽃의 왕, 모란을 생활용품과 의례용품 120여 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이다. 왕실에 풍요와 영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긴 모란을 소재로 하였으며 모란이 수놓인 창덕궁 왕실흔레복이 처음 공개된다.

실로 짠 그림-조선의 카펫, 모담

기간 2021.7.13.~2021.10.11.

장소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

조선시대 모담의 특징과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모담 무늬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모담은 털실과 면실을 엮어서 짠 조선의 카펫으로 새롭게 구입한 모담을 처음 공개하고, 일본에 전래된 모담인 '조선철(朝鮮綴)'을 조망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함평 예덕리 신덕고분

- 비밀의 공간, 숨겨진 열쇠

기간 2021.7.19.~2021.10.24.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전남 함평 예덕리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고분의 출토 유물과 연구 성과물을 공개하는 전시이다. 총 2기의 삼국시대 무덤 중 1호

무덤은 옆에서 볼 때 장구 모양을 하고 있어 장고분(長鼓墳)이라 불린다. 신덕고분의 발견에서부터 조사, 결과까지 총 5부로 구성했다.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故 이진희 회장 기증 명품전

기간 2021.7.19.~2021.9.26.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

고(故) 이진희 삼성 회장의 기증품을 특별 공개하는 전시이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하여 금속, 도자기, 전적, 서화, 목가구 등 시대와 분야를 대표하는 명품 45건 77점(국보·보물 28건 포함)을 특별 공개한다.

MMCA 이진희 컬렉션 특별전

: 한국미술명작

기간 2021.7.21.~2022.3.13.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전시실

고(故) 이진희 삼성 회장의 기증품을 특별 공개하는 전시이다.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를 비롯하여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제작된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이응노, 유영국, 권진규, 천경자 등 20세기 초 중반 한국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특별 공개한다.

'전 황복사 터 출토 신자료

기간 2021.8.27.~2021.10.24.

장소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천년보고 로비전시실

성림문화재연구원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신라시대 사찰 황복사 터에서 발굴한 유물을 공개하는 전시이다. 발굴된 유물 중 통일신라시대 불교 조각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석조상, 정교한 묘사가 돋보이는 금동불입상 7점 등 총 32점을 선보인다.

용담, 새로이 기억하다

기간 2021.8.31.~2021.12.5.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용담댐 완공 20주년기념을 기념하는 전시이다. 댐 건설로 인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주민들의 삶의 모습과 변화된 마을, 사람들의 모습, 지역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국민·지역의 자산이자 미래가치로 의댐을 기억하도록 마련했다.

고려 미·색·벨기에 왕립예술사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기간 2021.9.8.~2021.10.17.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1층)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0돌을 기념해 국내에서 보존처리를 마친 고려 시대 공예품 8점이 최초 공개되는 전시이다.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병 등 고려 시대 상감 청자 6점과 금동 침통, 청동 정병 등 금속 공예 2점을 선보인다.

무령왕릉 발굴 50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

기간 2021.9.14.~2022.3.6.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웅진백제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령왕릉 전시로 출토 유물을 한자리에 모두 선보이는 전시이다. 무령왕릉은 무덤 주인과 조성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삼국시대 왕릉으로 이번 전시에서 국보 12건 17점을 비롯해 총 5232점의 수준 높은 백제 문화의 정수를 만나 볼 수 있다.

중국 고대 청동기-신에서 인간으로

기간 2021.9.16.~2021.11.14.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중국 3대 청동기 박물관으로 꼽히는 상하이박물관의 명품 청동기 67점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하, 상, 주, 한나라까지 약 2천 년간 이어진 고대 국가들이 제작한 청동기들로 탄생부터 변천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상을 조명한다.

곡운구곡(谷雲九曲)

-화천에서 찾은 은자의 이상향

기간 2021.9.16.~2021.11.14.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앞서 선보인 관동팔경 시리즈 전시에 이어 김수증이 강원도 화천에 곡운구곡을 설치하기까지의 과정과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조명한 전시이다. 조세걸이 그린 《곡운구곡도첩》, 김수증과 송시열의 〈고산구곡도권 판화〉, 〈김시습 초상〉 등을 최초로 선보인다.

화력조선

기간 2021.9.17.~2022.3.6.

장소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한반도 최초 총통인 고총통에서 조총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소형 화약무기를 망라한 대규모 종합 전시이다. 보물 '만력기묘' 명승자총통과 총통 파괴력을 높이는 재료인 소형총통 격목 등의 유물을 통해 조선군이 각종 화약무기로 무장한 군대였음을 재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금은보다 귀한 옥

기간 2021.9.30.~2022.2.6.

장소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

마한과 백제 문화권을 중심으로 고대의 옥을 한자리에 모아 옥의 문화사적 흐름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옥들의 변화상,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활발하게 교역했던 마한과 백제 사람들의 모습을 비롯해 현대까지 이어지는 옥 문화까지 살펴 볼 수 있다.

국립청주박물관 금속공예 21선

- 녹이다, 두드리다, 다듬다

기간 2021.10.8.~2022.1.22.

장소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 특별전시실

선사시대부터 고대, 중세까지 이어지는 수준 높은 금속 공예 기술을 망라한 전시이다. 청주 오송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 '정문경'부터 청주 운천동에서 발굴된 고려 시대 '흥덕사가 새겨진 금고'까지 충북지역 대표 금속 공예 문화재들을 엄선해 선보인다.

북위-선비 탁발부의 발자취

기간 2021.10.15.~2021.11.28.

장소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전시실

수나라 통일과 당나라 발전의 모태가 된 나라인 북위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이다. 후룬베이얼박물관, 다통시박물관, 뤼양박물관 소장품을 대상으로 탁발부의 북위 건설과 의식주, 의장 행렬, 룡문석굴·영녕사 등을 통해 보는 불교문화, 백제와의 관계 등을 조명한다.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

기간 2021.10.19.~2022.2.13.

장소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등 중 하나인 익산 미륵사 석등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1300년 전 모습으로 재현해냈다. 현재 조각 13점만이 남아 있는 석등을 3D스캔으로 디지털 복원한 것으로, 석등을 조립해보거나 직접 불을 붙여보는 점등 의식 실감형 콘텐츠도 함께 마련했다.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

기간 2021.11.3.~2022.12.31.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1층)

1450년대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인쇄 시기보다 10여년 앞선 조선 전기 금속활자 '갑인자(甲寅字)'를 비롯해 지난 6월 서

을 종로구 인사동에서 출토된 유물 1755점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금속활자와 천문학을 주제로 조선 인쇄술과 과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개관

기간 2021.11.12.~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삼국시대 대표 유물이자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던 신타르타의 모습을 형상화한 금동 반가사유상 두 점이 한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교대로 한 점씩 선보였던 두 불상을 나란히 상설 전시한 것으로 우주 같은 공간에 노출 전시하여 하나의 작품 같은 공간을 연출했다.

한국의 허리띠-끈과 띠-

기간 2021.11.23.~2022.3.27.

장소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허리띠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며 허리띠가 우리 복식과 삶에서 지닌 의미를 살펴보는 전시이다. 경주 천마총, 서봉총의 금관과 금 허리띠를 비롯해 경산 신대리 호랑이 모양 띠걸이 등 한국 역사 속 중요 허리띠 자료 600여 점이 공개된다.

고대 한국의 외래계 문물

- 다름이 만든 다양성

기간 2021.11.24.~2022.3.20.

장소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실

교류의 산물인 외래계 문물을 소개하는 전시이다. 경주 계림로 14호 무덤 출토 황금보검을 비롯하여 북방 유목민족의 동물장식, 중국과의 교역품, 동남아시아의 유리구슬,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의 일본계 유물 등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세계의 국제적 교류활동을 엿볼 수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불교사원실> 신설

기간 2021.11.24.-

장소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 2층

신라 대표 사찰의 출토품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불교사원실이 신설됐다. 신라미술관 2층의 기존 황룡사실을 확장한 전시공간으로 신라 최초 사찰인 흥륜사부터 황룡사, 분황사, 감은사 등 발굴품 530여점을 통해 불교문화의 흥망성쇠를 한 눈에 담아냈다.

역병, 일상

기간 2021.11.24.-2022.2.28.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전통사회를 휩쓴 역병과 그 속에서 일상을 지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부터 거슬러가 전통사회를 휩쓴 역병과 그 속에서 일상을 지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절제로 전염병을 극복했던 조상의 지혜를 만나볼 수 있다.

제주와 박물관, 동행

기간 2021.11.26.-2022.2.6.

장소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

복합문화 전시관 일반 공개와 함께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마련된 전시이다. 최초 공개되는 '안중근의사 유묵(보물, 개인 소장 기탁품)'과 '제주도 내왓당 무신도(국가민속문화재,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백제실·가야실> 개편

기간 2021.12.3.-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백제와 가야의 전체 역사를 주제별로 새롭게 단장한 상설 전시실이 공개됐다. 최근 조사된 부여 왕흥사지 치미와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잔등을 비롯하여 총 725건의 전

사품을 전시했다. 동시에 전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시 연출을 시도한 것도 특징이다.

충청권역수장고 개관전시

기간 2021.11.29.-

장소 국립공주박물관 충청권역 수장고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보관·관리를 위해 건립된 충청권역 수장고가 문을 열었다.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를 극복하고 열린 구조로 설계해 전체 6개 수장고 중 4곳을 관람할 수 있다. 마한, 백제 유물과 충청 및 한강이남 지역의 대표 금속 유물 등 5,700여건을 감상할 수 있다.

가야인, 바다에 살다:

가야의 배와 항해 이야기

기간 2021.11.30.-2022.3.6.

장소 국립김해박물관 기획전시실

바다와 흥망성쇠를 함께한 가야 사람들의 발자취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전시이다. 옛 김해만의 자연경관 복원에 관한 연구 성과와 남해안 일대에 축적된 고고학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해상왕국'으로도 불리는 가야 문화의 특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고궁연화古宮年華

기간 2021.12.1.-2022.2.27.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2층)

경복궁 발굴·복원 30년사(史)를 돌아보는 전시로 조선의 법궁(法宮)이었던 경복궁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연간 천만 명이 찾는 생명력 넘치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기까지의 발굴과 복원 노력을 조명한다. 그동안 잘 소개되지 않았던 발굴 현장 기록 일지, 발굴 실측 도면과 복원 도면 등 20여 점의 원본 자료를 총망라하여 경복궁 발굴·복원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실감 콘텐츠로 제작된 인터뷰 영상과 미디어

파사드 기법이 적용된 3면 영상으로 몰입감을 높였다.

조선의 승려 장인

기간 2021.12.7.-2022.3.6.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조선 시대 불교미술을 조성한 승려 장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살펴보는 전시이다. 조각상 단상이 불상과 불화를 결합하여 만든 '용문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과 의겸의 '해인사 영산회상도(보물)' 등이 전시되는 대규모 조선시대 불교미술전으로 조선의 승려 장인과 이들이 만들어낸 불교미술 속 아름다움 및 가치를 새롭게 느껴볼 수 있다.

고려음高麗飮

- 청자에 담긴 차와 술문화

기간 2021.12.13.-2022.3.20.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고려 청자의 쓰임새에 대한 전시이다. 그림, 문헌 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고려시대에 대해 동시기 중국 그림과 벽화 자료를 통해 차잔과 술잔을 나눠 살펴보고, 다양한 청자와 도구들의 쓰임새도 담았다.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漆, 아시아를 칠하다

기간 2021.12.21.-2022.3.20.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아시아 칠공예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이다. 아시아 각지에서 사용해진 옻칠은 기물의 마감재와 장식 안료로 사용하면서 각 지역 취향에 기반한 칠공예로 꽃피었다. 켜켜이 쌓아 올린 칠공예를 통해 인내의 정수와 같은 시간의 예술을 즐길 수 있다.

선비의 서예

기간 2021.12.27.~2022.4.3.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선비서예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글씨를 쓰며 가졌던 마음가짐과 정성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이다. 조선 선비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중국의 왕희지·안진경·조맹부를 비롯하여, 조선의 한호·윤순·이광사·김정희 등의 글씨가 담긴 법첩이 전시된다. 또한 전북 김제에서 활동했던 선비 이정직(1841~1910)의 작품들과 서화론을 살펴볼 수 있다.

〈공립박물관〉

추사필담첩1: 1822년 김노경의 연행

기간 2021.10.9.~2021.12.5.

장소 추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9세기 초 동지검사은정사 김노경이 연행을 다녀온 내용을 주제로 한 전시이다. 추사필담첩은 박제가, 김정희, 김노경 등이 청나라 문인들과 나눈 190장의 필사본이다. 필담을 통해 드러나는 김노경의 학문적 깊이와 청나라 서화가 유식, 오송량 등의 자료도 살펴볼 수 있다.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

기간 2021.10.26.~2022.2.20.

장소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기획전시실

조선전기 석조미술품의 극치로 불리는 '양주 회암사지 사리탑'의 보물 승격 지정을 기념한 전시이다. 1464년 효령대군이 회암사에 연 원각법회를 계기로 건립된 진신사리탑으로 사리탑의 형식과 불교미술의 도상, 왕실불교의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한양의 상징대로, 육조거리

기간 2021.11.16.~2022.3.27.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600여 년전 한양 조성 이래 핵심 관청가였던 육조거리와 그곳을 오갔던 사람들에 대한 전시이다. 법궁인 경복궁으로 향하는 국가의 권위를 상징했고, 한양 최대 관청가로 관원들의 출퇴근길이며 업무공간이었던 육조거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다.

〈사립박물관〉

따르고 통하다, 고려주자高麗注子

기간 2021.8.3.~2021.12.31.

장소 호림박물관 신사 분관

고려시대 다양한 주자를 모아 집대성한 전시이다. 고려 주자의 변천과 술, 차를 따르는 용도의 주자를 각각 소개하고 마시는 문화 속에서 피어나는 '소통'을 이야기한다. 다양한 재질의 고려 주자와 중국 백자 주자 등 절반 이상의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처음 공개된다.

통하고 만나다, 다반향초茶半香初

기간 2021.8.3.~2021.12.31.

장소 호림박물관 신사 분관

고려주자전의 술과 차를 마시는 문화를 통해 들여다본 '소통'에서 확장된 현대미술 전시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예술로서 전세 계와의 만남을 추구한 백남준의 'W3', 깨진 청자를 금으로 이어 붙여 더 크고 화려한 형태로 재탄생한 이수경의 '번역된 도자기' 등이 전시된다.

화장(華藏) 지리산 대화엄사

기간 2021.9.14.~2021.11.14.

장소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지리산 화엄사를 비롯한 전남의 문화유산을 한번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이다. 국보로 승격된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복장물과 비로자나삼신불회도를 비롯해 '홍치 2년'명 송죽문 향아리 등 한국 화엄사상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화재 국외 반출의 현재와 미래〉

일시 2021.7.8.~2021.7.9.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문화재청, 한국미술사학회

•7.8. 문화재 국외 반출에 관한 정책과 법률(한영 동시통역)

1. 장벽인가 보호인가? 대만 문화재 국외 반출 규정
- 쉬페이인(대만국립고궁박물관)
2. 일본 문화재 관련법
- 나가사와 유코(도쿄대학교)
3. 고대 유물에서 NFT로: 예술시장에서 블록체인인의 발전 가능성
- 에이미 휘태커(뉴욕대학교)
4. 문화재의 국가적 중요성: 2016년 제정된 독일 문화재보호법의 반출 규제
- 마리아 오베나우스(독일 로스트 아트 재단)
5. 장벽의 보호와 확장: 이탈리아 문화재의 해외 유통
- 주세페 칼라비(CBM & 파트너스 스튜디오 리갈, 밀라노)
6. 문화재의 이동성: 그리스 박물관 컬렉션들의 사례
- 말렌 물리우(아테네 국립 카포디스트리아대학교)
7. 프랑스 문화재 반출에 관한 법률적 과제: 국보의 개념
- 앤 소피 나르돈(보르거스 협회)
8. 문화재 반출에 관한 영국 법률 및 정책: 정부 및 미술 시장의 관점에서
- 아나스타사 테넨트(잉글랜드 예술위원회) & 웬디 필립스(소더비 영국과 아일랜드)

•7.9. 해외 한국미술 컬렉션과 전시의 미래(한영 동시통역)

1. 미국 내 한국 미술 수집과 홍보: 과거와 미래 방향
- 이소영(하버드 미술관)
2. 미국 내 한국 미술의 발전에 미치는 문화재청의 영향
- 버지니아 문(로스앤젤레스 카운티미술관)
3. 유럽 내 한국 컬렉션의 과거, 현재, 미래: 독일 컬렉션을 중심으로
- 박지영(베를린 공과대학교)
4. 한국 미술시장 및 문화재 보호법
- 정승우(재단법인 유중재단, 고려대학교)
5. 한국의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제도의 현황
- 박도화(문화재청)
6. 한국의 일반 동산문화재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 이동웅(문화재청)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학술대회: 무령왕릉을 다시보다〉

일시 2021.7.8.

장소 국립공주박물관 강당

주최 국립공주박물관, 공주대학교역사박물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한국고대사학회

•1부

1. 무령왕릉과 공주지역 전설묘
- 서정석(공주대학교)
2. 백제 상장례 검토
- 김규동(국립중앙박물관)
3. 무령왕릉 출토 금동식리
- 이한상(대전대학교)

•2부

1. 무령왕릉 출토 관식
- 이귀영(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 무령왕릉 출토 명문전의 재검토
- 이병호(공주교육대학교)
3. 일본학계에서 무령왕릉에 대한 시각
- 박재용(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라학 학술대회 '신라 왕경의 사원'〉

일시 2021.9.10.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국립경주박물관

1. 왕경 사원의 가람 구성-황룡사, 감은사, 황복사를 중심으로
- 이용현(경북대학교)
2. 신라 왕경 사찰의 분포와 경관
- 이동주(경북대학교)
3. 신라 왕경 사찰의 불상 재료
- 김동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4. 신라 왕경과 주변의 탑
- 신용철(양산시립박물관)
5. 신라 사찰의 방형석조와 생활공간
- 한정호(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외규장각 의궤 학술총서6 발간 연계 공동학술대회:
외규장각 의궤로 본 조선 후기 공신 책봉과 녹훈 의례〉

일시 2021.10.1.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사학회

1. 조선 후기 공신(功臣) 녹훈(錄勳)의 정치적 배경
- 이근호(충남대학교)
2. 숙종 대 보사공신(保社功臣)의 녹훈(錄勳)과 정치적 의미-『보사
녹훈도감의궤(保社錄勳都監儀軌)』를 중심으로-
- 윤혜민(건국대학교)
3. 숙종 대 보사공신(保社功臣)의 복훈(復勳)과 『보사복훈도감의궤
(保社復勳都監儀軌)』
- 김우진(단국대학교)
4. 영조대 분무공신(奮武功臣)의 녹훈(錄勳)과 『분무녹훈도감의궤
(奮武錄勳都監儀軌)』
- 신진혜(광주과학기술원)
5. 『분무녹훈도감의궤』와 공신화상 제작
- 민길홍(국립민속박물관)
6. 숙종 대 보사공신(保社功臣) 녹훈(錄勳)과 〈이십공신회맹축〉 제작
- 유새롬(국립중앙박물관)
7. 『분무녹훈도감의궤(奮武錄勳都監儀軌)』로 본 영조대 초기 의궤
도감(儀軌都監)의 구성과 기능
- 임혜경(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신안선 출항 준비 세미나 5: 원나라의 대외 교류와
무역품〉

일시 2021.10.13.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국립광주박물관

- 1부: 원나라의 대외 무역과 신안해저문화재
 1. 경덕진 낙마교요 출토 원대 백자 및 청화백자 고찰: 신안선 출
수 백자 관련 문제를 곁다며
- 지양지앤신(景德鎮市陶瓷考古研究所)
 2. 원 제국과 고려 청자의 대외 교역
- 한성옥(민족문화유산연구원)
 3. 원나라의 자단목 중개무역: 신안선 출수 자단목을 중심으로
- 김병근(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2부: 송·원-가마쿠라의 교류와 무역품
 1. 13·14세기 동아시아 해역을 잇는 보타산 관음신앙과 그 도상
- 니시타니 이사오(泉涌寺)

2. 14세기 일본의 중국회화 수용: 신안선 출수 '軸'에 대한 이해를
위한 소고
- 이정은(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의 구국문화와 곡운구곡도첩〉

일시 2021.10.23.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한국미술사학회, 국립춘천박물관

1. 곡운구곡도의 실경과 회화양식의 재조명
-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2. 〈곡운구곡도〉의 필진逼真한 표현에 담긴 1682년 조선 '구곡도'
제작의 의미
- 조규희(서울대학교)
3. 구곡도의 문학적 형상화
- 고연희(성균관대학교)
4. 문화文華한 장원莊園: 1804년작 〈임곡운구곡도臨谷雲九曲圖〉
의 회화사적 고찰
- 박효은(홍익대학교)
5. 조선 후기 '고산구곡도高山九曲圖' 판본板本 검토
- 명세라(국립춘천박물관)

〈제주 불교문화 조사연구 연계 학술대회〉

일시 2021.11.12.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국립제주박물관

- 1부: 제주 불교문화의 시작과 발전
 1. 제주도 寺址 특징과 의의
- 이현수(불교문화재연구소)
 2. 제주 불교유적 출토품 재검토-명문 금속제 출토품을 중심으로-
- 신명희(국립중앙박물관)
 3. 제주지역 불탑의 특징과 조성 배경
- 진정환(국립제주박물관)
 4. 제주도 돌하르방 기원 문제와 불교조각과의 관계
- 정성권(단국대학교)
- 2부: 조선 후기 근대 제주 불교문화의 특징
 1. 새로운 聖所의 오래된 聖物, 제주도 소재 조선시대 불상
- 양수미(국립중앙박물관)
 2. 제주 근대기 전통불화의 제작과 특징
- 이승희(덕성여자대학교)
 3. 1940년대 제주 포교당 건립과 금융 일섭(1900-1975)의 불사
- 김영희(국립광주박물관)

〈제7회 미술사학대회: 재난 극복과 미술사〉

일시 2021.11.13.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관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서양미술사학회, 한국미술이론학회,
한국미술사학회

•1부

1. 페르시아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승리의 기억: 전승 기념물과 봉헌물을 중심으로
- 김혜진(한국외국어대학교)
2. 조선 17세기 전반기 불교 건축 재건의 성격: 전쟁 재난의 피해와 극복을 중심으로
- 이강근(서울시립대학교)
3.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와 폐허의 풍경화
- 이화진(한국항공대학교)

•2부

1. 畫龍祈雨祭, 그림의 呪術力으로 재난을 극복하다
- 고연희(성균관대학교)
2. 세계 미술사 속에서의 환경 재해와 시각, 물질 문화에 대한 연구와 전시 현황
- 임수아(클리블랜드 미술관)
3. 6.25 전쟁과 국난 극복의 미술
- 조은정(고려대학교)

•3부

1. '예술의 종말' 그리고 '종말의 예술': 아서 단토의 〈9/11과 예술〉 전시에 대한 소고
- 최종철(이화여자대학교)
2. 팬데믹 이후 미술관 운영 패러다임의 인식론적 전환과 동시대적 과제
- 김연재(한국예술종합학교)

〈2021년 제37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 불교출판문화와 미술사〉

일시 2021.11.13.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불교미술사학회

1. 고려 후기 阿字圓相隨求陀羅尼 연구—八葉三十七尊曼陀羅의 관계를 중심으로
- 손희진(이화여자대학교)
2. 고려 「어제비장전」 판화에 나타난 高僧의 표현과 의미
- 석혜영(경북대학교)

3. 明代『出相金剛般若波羅蜜經』의 계통과 판화 도상 연구
- 김자현(울산대학교)
4. 속초 普光寺 소장 「諸佛如來菩薩名稱歌曲」 변상판화의 특징과 영향력
- 조혜미(서울공예박물관)
5. 불교전적에 수록된 지옥의 인식과 판화
- 박광현(전북대학교)
6. 통도사 소장 대한제국 광무 3년(1899) 인경 고려대장경의 현상과 불안
- 박용진(국민대학교)

〈쌍계사 개산 1297주년·창건 1181주년 기념 학술대회: 천년선찰 하동 쌍계사의 불교회화〉

일시 2021.11.20.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주관 한국불교미술사학회

기조발표: 하동 쌍계사 대웅전 석가 삼세불회도의 종합적 연구
- 문명대(동국대학교)

1. 쌍계사 팔상도의 도상과 특징
- 김정희(원광대학교)
2. 하동 쌍계사 고법당(팔상전) 영산회상도 연구
- 고승혁(동국대학교)
3. 하동 쌍계사 심장보살도 연구
- 안희숙(동국대학교)
4. 하동 쌍계사 감로도(1728년)의 도상 특징과 의미
- 유경희(국립중앙박물관)
5. 쌍계사 개산의 여가와 창건주 진감선사의 사상
- 문무왕(전 동명대학교)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학술 심포지엄: 괘불을 보는 관점과 과제〉

일시 2021.12.10.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문화재청, 성보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1부: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성과

1.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성과
- 허상호(성보문화재연구원)

•2부: 대형불화의 가치와 상징

1.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조선 시대 괘불의 문화적 가치
- 정명희(국립중앙박물관)

2. 장엄을 통해 본 조선 후기 과불의 세계
- 장병모(한국민화학교)
3. 한국 과불탱의 저변과 확장성
- 박은경(동아대학교)

•3부: 대흥불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보존·관리

1. 과불탱의 과학적 조사 연구와 성과
- 김소진(국립문화재연구소)
2. 과불탱 색의 시대: 전통 색채와 표현 기법
- 김민(국민대학교)
3. 과불탱의 제작 형태와 손상 양상
- 정희원(국립문화재연구소)
4. 과불탱의 새로운 가치 발견과 관리 방향
- 손영문(문화재청)

〈2021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한국미술의 국제화〉

일시 2021.12.16.~2021.12.17.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12.16. 한국미술의 국제적 역할, 유형 문화유산의 활용

1. 한국미술 국제화를 위한 한국 국립박물관 정책 현황과 과제
- 최환(문화체육관광부)
2. 한국문화재 국외 전시의 성과와 과제
- 윤상덕(국립중앙박물관)
3.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의 복원과 과제
- 천주현(국립중앙박물관)
4. 한국문화재의 수집, 보존, 공유_브리티시뮤지엄의 한국미술
- 김상아(영국 브리티시뮤지엄)
5. 시카고 미술관과 한국미술의 전망
- 지연수(미국 시카고미술관)
6. 전시를 통한 한국 현대미술의 글로벌 연대와 확장
- 강수정(국립현대미술관)

•12.17. 한국미술의 미래지향적 구현과 소통

1. 한국미술의 현재와 미래_영국 사례연구 중심
- 살롯 홀릭(영국 SOAS, 런던대학교)
2. 헝가리 한국미술의 교육과 연구
- 베아트릭스 매치(헝가리 엘테대학교)
3. 변화하는 한국미술 미래 발전을 위한 10년(2009-2019)의 노력
- 제이슨 스투버(미국 애플론 미술관)
4. 전통과 현대의 힘(HEP)한 조합_한국 홍보영상으로 보는 K- 문화
- 함창호(한국관광공사)
5.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주요 역할과 전략
- 박유리(한국국제교류재단)

6. 일본에서의 한국미술 전시 및 교육
- 가타야마 마비(일본 도쿄예술대학교)

〈동아시아 불교미술의 제작자〉

일시 2021.12.18.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주최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미술사학회

•1부: 제작자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불교미술

1. 불가사의한 대가: 텐쇼 슈분과 중세 일본 선화승의 이미지
- 유키오 리핏(미국 하버드대학교)
2. 네트워크로서의 중국 송대 화가
- 필립 블룸(미국 헌팅턴 도서관 미술관 및 식물원)
3. '畫員'이라 불린 승려: 조선시대 불교회화의 제작자
- 정명희(국립중앙박물관)
4. 18세기 후반 남장사 불사 참여 화승들의 공동작업과 승려문중
- 이용윤(한국학중앙연구원)

•2부: 동아시아 불교미술의 名匠

1. 승려이자 숙인 불화사로서의 장사공
- 이데 세이노스케(일본 규슈대학교)
2. 조각승 현진 연구
- 송은석(동국대학교)
3. 가마쿠라시대의 불사 운케이
- 아사미 류스케(일본 도쿄국립박물관)

•3부: 동아시아 불교미술 名品の 탄생과 제작방식

1. 조각승 단웅과 예찬 용문사 〈조각아미타여래설법상〉에 관한 연구
- 허형욱(국립중앙박물관)
2. 10-12세기 동아시아 석굴예술의 장인과 그 작품: 개, 문 두 성씨 가문 장인을 중심으로
- 미더판(중국 대족석각연구원)
3. 조선 후기 목조불상의 제작 기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조보살유왕좌상을 중심으로
- 권강미, 양석진(국립중앙박물관)